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V)*

— 부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Family Life Issues of Middle Aged Apartment-Residents in Seoul : Focused on Case Studies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임정빈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동학과
교수 이기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한국교원대학교 제3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조재순
한국 청소년 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성혜
한양여자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임혜경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송혜림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 Jeong Bin Im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Assoc. Prof. : Yon 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 Assoc.

Prof. : Jae Soon Cho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enior Researcher : Seong Hye Ko

Dept. of General Education for Women, Hanyang Woman's Junior Coll.

Assis. Prof. : Hye Kyung Lim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

Fulltime Lecture : Hye Rim Song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연구방법

III. 중년기 부인의 가정생활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Abstract〉

This study is the last part of a collaborative study on the Family Life Issues of Middle aged Apartment-Residents in Seoul. This study is focused on case stud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5 fulltime housewives who are in the upper-middle and the lower-middle families having at least one child in a middle or high school from Kangbuk and Kangnam areas.

In this study, the whole family life issu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4 subareas ; 1. housewives' own life, 2. family life, 3. economic environments, 4. housing environments.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is : the most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 aged family was the existence of children attendi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which brought various problems into the family with relation to self identity, time management and leisure of middle aged housewife, educational cost, shared family activities, housing space. Therefore the whole family life would be improved through the change o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I.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공동연구의 마지막 완결편이다.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연구자들은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주생활영역, 경제생활영역, 시간사용영역 그리고 가족관계영역의 네가지 하위분야로 나누어 영역별 실증적 연구를 하여 왔다. 이 네 생활영역은 각각이 대상가정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표현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동안의 연구가 특정한 하위영역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연구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가정생활의 양상을 총체적 시각을 통하여 완결하고자 한 것이다. 즉 가정생활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영역을 생점화하여 가정생활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그

리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총체적인 견지에서 가정생활을 주부자신의 생활, 가족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주거생활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심층적인 사례조사라는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자들이 참여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양적인 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생활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개별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 가족은 강북의 7가정과 강남의 8가정이며 아파트 크기에 따라 35-45평을 중상, 25평 이하를 중하로 구분했을 때 중상은 7가정, 중하는 8가정이다. 따라서 강북중상이 3가정, 강남중상이 4가정, 강북중하가 4가정, 강남중하가 4가정이다. 조사대상자의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 <표 1>에 나와있다.

사례	구분	주택의 크기 및 소유형태	주부 연령	주부 학력	남편 학력	남편직업	가족 수	자녀수 및 구성	가족 형태	소득	종교	결혼기간
1	중상강북	48평, 자가	38세	전문대 중퇴	대졸	사업	5	2-중2(여), 국4(남)	확대(시모 동거)	490만	불교	15년
2	중상강북	45평, 자가	43세	고졸	대졸	회사과장	4	2-재수(남), 고3(남)	핵가족	230만	천주교	19년
3	중상강북	46평, 자가	51세	고졸	고졸	자영업	6	3-대4(여), 고졸(여), 고2(여)	확대(시모 동거)	500만	기독교	23년
4	중상강남	35평, 자가	45세	고졸	대학원졸	전문직	5	3-고졸(여), 고2(여), 중1(여)	핵가족	180만	불교	20년
5	중상강남	35평, 자가	46세	고졸	대학원졸	전문직	4	2-고3(여), 고1(남)	핵가족	250만	없음	20년
6	중상강남	43평, 자가	42세	대졸	대졸	회사 중역	4	2-고2(여), 중2(여)	핵가족	450만	없음	17년
7	중상강남	44평, 자가	41세	대졸	대졸	사업	5	2-중1(여), 국5(남)	확대(시모 동거)	400만	없음	14년
8	중하강북	24평, 전세	36세	전문대졸	대학원졸	전문직	4	2-중2(남), 국6(여)	핵가족	150만	기독교	13년
9	중하강북	13평, 전세	44세	고졸	고졸	개인택시 기사	4	2-고3(남), 고1(남)	핵가족	160만	불교	19년
10	중하강북	13평, 자가	43세	중졸이하	고졸	개인 용달	4	2-대2(남), 고3(남)	핵가족	240만	불교	21년
11	중하강북	18평, 자가	38세	중졸	중졸	택시 기사	4	2-중2(여), 중1(여)	핵가족	245만	천주교	14년
12	중하강남	24평, 자가	44세	중졸이하	대졸	교사	6	4-대1(남), 고2(남), 중2(여쌍둥이)	핵가족	330만	천주교	14년
13	중하강남	25평, 자가	46세	고졸	대졸	회사 중역	4	2-고1(남), 중2(여)	핵가족	300만	없음	18년
14	중하강남	17평, 전세	39세	고졸	대졸	공무원	5	3-고3(남), 중2(남), 중1(남)	핵가족	150만	불교	18년
15	중하강남	25평, 자가	45세	고졸	대졸	공무원	6	4-대졸(여), 고졸(여), 고3(여), 고1(남)	핵가족	150만	기독교	22년

Ⅲ. 중년기 부인의 가정생활

1. 주부자신의 생활

1) 자아정체감

중년기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를 재평가하는 시기로서, 중년기 부인의 경우 특히 가정적 역할의 변화까지 부가됨으로써 변화의 폭이 남성에 비해 큰 편이다. 중년기 부인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견해 등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으나 문항별 빈도를 고려할 때 28-32%의 부인이 자아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연숙 외, 1995).

심층면접한 사례를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경우를 보면, 자신에 대하여 “행복하다”(사례 2), “대견스럽다”(사례 3, 11, 14)로 표현하는 사례들이다. 자신을 행복하다고 적극적인 긍정을 표시하는 사례 2의 경우, “무엇보다 가정에서 남편,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사니까 행복해요. 검소하게 절약해가며 살림 잘 꾸려나가고,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애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사니까 최고지요”라고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이 부인의 경우 주부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가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데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의 근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인은 살아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며 가족관계 또한 좋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17평형 아파트에 세자녀와 함께 다섯식구가 좁게 살고 있으며 젊을 때에는 이혼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사례 14의 39세 부인도 현재에는 자신을 대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이 부인은 “결혼 초기 콤플렉스가 심하고 술을 잘 마시는 남편과의 힘들었던 상태를 생각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대견스럽고, 큰 어려움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 이 부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원은 인내심과 자신의 건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면접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낙천적 성격도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인은 “살면서 건디기 힘들 때는 노래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친구들과 떠들며 털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한다. 이 부인의 경우 인내심, 건강, 낙천적 성격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극복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를 보면, “허전하다”(사례 1, 4), “불만이다”(사례 8), “안스럽다”(사례 12), “아무 생각없이 산다”(사례 5, 9, 13, 15), “그냥 사니까 산다”(사례 7), “할 수 없이 산다”(사례 6)로 표현하는 부인들이다.

사례 7의 경우 “요즘의 생활은 그냥 사니까 산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아이들 뒷바라지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매일매일이 꼭 같은 생활의 연속”이라는 말로써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들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돈문제나 여자문제 없이 지내는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애들도 착실하고 공부도 잘 하는 등 가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부인은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하여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후회가 딸 아이에게 가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부인은 가족을 위한 자신의 생활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족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사치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산 것에 대하여 만족스러워 하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없는데 대한 불만 때문에 자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42세 부인의 경우(사례 6)는 사회적 역할의 부재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을 밝히고 있다. 이 부인은 현재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 제

대로 된 집을 장만하느라 생활이 몹시 조달렸기 때문에 “티 조각”이나 입었지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보지 못하는 생활을 해왔다. 지금은 경제형편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자신의 문화비는 여전히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인은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다. 왜냐하면 애들과 남편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조각나기 때문이다. “나는 돈도 시간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나에게 좋은 머느리상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억울하기조차 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너무 남편과 시댁 위주로 산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 부인의 경우 이제까지의 삶이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편, 자녀, 시댁이 중심이었고 자신은 항상 주변인으로서 적응만 해야 했던 점에서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이제까지 절약하여 비교적 넓은 자가 소유했지만 주위의 여유있는 이웃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주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인이 있는가 하면, 주부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주변인으로서 타인에게 적응하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주부 역할 그 자체는 중시하고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끼면서도 그 이상의 사회적 역할이 없어 갈등을 겪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중년이 되어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점은 각 개인의 요구와 자원의 조합에 따라,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어도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비록 경

계적으로 어렵고 부부관계가 특별히 다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안정된 결혼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가족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무리없이 하는 정도의 생활일지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요구와 자원의 조화와 가치의 실현 정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2) 여가생활

중고교생 자녀를 둔 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전단계에 비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인에게는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게 된다. 특히 직업이나 학업 등 가정과는 별도의 역할영역을 가진 남편이나 자녀와는 달리 가정내 역할이 대부분인 전업주부의 경우 여가생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면접한 결과에서도 “애들이 다 컸으니가는 시간이야 많죠”(사례 14), 또는 “시간이야 남아돌아가죠, 마음의 여유가 문제지”(사례 13) 등의 표현에서 보듯 일반적으로 이전단계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애들이 컸다고는 하지만 도시락 챙겨야죠, 학원시간 챙겨야죠, 때 맞춰 간식 챙겨야죠, 한가한 때가 없어요”(사례 8)라는 부인의 경우처럼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사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인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가시간의 총체적인 양보다는 여가시간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욕구충족과 직결된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의 입장은 자신의 시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게 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의 여가시간은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조각나게 된다. 한 부인의 경우(사례 6)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남편이나 애들 챙기는데 시간이 다 가죠. 물론 가족들도 그 점을 고마워하지요. 그게 또 보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내 생활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허전해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부분의 본 사례조사대상 부인들은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른 많은 실증

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김외숙 외, 1995). 텔레비전 시청외에 정기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서는 운동, 모임참석, 요리강습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류이상의 전업주부들은 사회의 다른 어떠한 인구집단보다 여가를 즐기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예측되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시청이나 모임참석 이외에 평일에 특별한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례 2, 12, 13). 또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그 활동이 등산이다(사례 3, 6, 9, 10, 14). 등산을 즐기는 부인들은 그 이유로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회비나 재료비나 하는 돈이 따로 들지 않아서 좋다”는 점을 들고 있다(사례 14).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높은 물가에 생계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과외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주부 자신의 여가생활을 위해 금전을 사용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텔레비전 시청 이외에 특별한 활동은 거의 없는 사례 12와 15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이 여가생활의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부인들의 여가생활에 장애가 되는 점으로는 시간적·금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주부 자신의 문제, 남편의 이해나 협조부족, 사회적 환경의 정비 미비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례 6은 “내 몸이 힘들니까 만사가 귀찮다”라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제일 큰 장애로 들었고, 사례 13은 “마음의 여유”가 문제라고 보았다. 사례 3과 사례 14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나 남편들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부인들이 실천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불만을 느끼는 경우이다. 사회적 여건에 대한 문제점은 여가생활에 불만인 부인들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인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다. 즉 여가활동참여가 다양하지 못하고 여가생활에 불만족인 부인들은(사례 3, 9, 13) 개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부인(사례 4)은 “문화시설이 더욱 많아지고 이용료도 더 싸

져야겠다”는 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의식화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가장애를 연구할 때 개인의 응답을 기초로 장애지각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여가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가만족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생활만족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연숙 외, 1995). 그러나 본 사례연구에서 여가에 만족한다는 두 부인 모두 자아정체감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례 4는 자신의 여가생활에는 “그런대로 만족”하지만 자신의 삶은 “허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사례 5도 자신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부인의 여가생활을 밝힌 연구결과(김외숙 외, 1995)에서 보고한 대로 이들의 여가활동참여가 개인적 수준에 머물고 사회적 연대를 갖지 못하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여가시간이 많다든가 돈을 들여 여가활동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 활동들이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할 때는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 또는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생활

1) 부부관계의 양상

가족은 부부의 결합으로 형성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가족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 등의 하위체계와 전체 가족체계 기능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과 부부의 만족정도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U자 형태를 갖는 곡선커브를 나타내는데, 중·고교 자녀를 갖는 가정생활주기에서 최하위점에 도달한다고 한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장휘숙, 1995). 결혼지속년수가 13년-21년 사이이며 중·고교생 자녀를 둔 본 연구의 사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 맞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양상을 Cuber 와 Harrof (한국가족학연구회, 1993)가 분류하는 생기를 잃은 부부관계와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 생기있는 부부관계로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생기를 잃은 부부관계

결혼생활의 적응유형에서 생기를 잃은 부부관계는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반복적으로 권태롭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을 말한다. 본 사례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유형의 부부인 경우, 남편에 대하여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사례 4).”, “아무생각이 없어요(사례 13).”, “별 생각없이 지내요(사례 7).”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례 7의 경우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편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응답하고 있듯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 돈, 에너지, 관심 등이 부부사이의 친밀감과 애정유지를 위한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등의 동반적 활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표면상 부부간에 갈등은 적으나 부부간에 생기를 잃고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결혼생활을 그러저럭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저는 다시 결혼을 하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아요, 큰 문제에 대담하게 대하는 남자가 좋아요(사례 4).”, “기타치며 노래도 불러주고 눈을 때 눈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사례 13).”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결혼과는 다른 대안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 13이나 7의 경우는 “이혼도 가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어렵고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 혹은 자립한 후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가능하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재 그러저럭 표면상 별 갈등없이 지내는 이들도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

Cuber와 Harrof의 결혼생활 적응유형 중 이러한 부부관계는 잔소리, 말다툼의 연속으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며 사소한 일상생활의 견해차이부터 가치의식, 정치, 종교문제에까지 의견의 차이가 나서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특성이 있다.

사례 3은 “우리남편은 60점짜리예요. 가사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묵은 음식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던지고요, 술을 마시면 독선적이고 괴팍해집니다. 결혼 7년후 별거도 했었어요. 다시 결혼한다면 여자를 인정해 주는 남자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생에 이혼 경력을 남기고 싶지 않고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라고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례 12는 “우리 남편하고 의견충돌이 있으면 해결이 안돼요. 대화를 하다보면 소리가 커져서 중단해요. 다시 결혼하면 말이 적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의견충돌이 있으면 남편이 기물을 던지기도 하니까 제가 참아요. 다시 결혼한다면 친구같고 유머가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이혼도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고생할 것 다하고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겠어요.”하는 사례 14, “남편은 이기적인 성격이에요. 새 사람과 새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다시 결혼하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아요. 이혼은 가끔 생각해 보는데 자녀 대학입시 후가 되어야 가능하겠지요. 남편과 의견충돌이 있으면 해결안된 채 서먹서먹하게 지내요.” 라고 하는 사례 6의 경우 모두 다소 양상은 차이가 나더라도 갈등이 습관화 된 유형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유형도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외부적 압력 즉 자녀에 대한 의무감, 자신 주변의 외부 압력 등에 의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부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기를 잃은 부부관계에서 보듯이 모두 현재와는 다른 결혼생활의 대안을 가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3) 생기있는 부부관계

부부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애정이 식지 않아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고 있는 여러 사례에서 이러한 유형의 부부관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남편을 “튼튼해요(사례 5, 9, 15)”, “매우 만족해요(사례 1, 8)”, “매우 고맙게 생각돼요(사례 2)”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편에게 만족스러운 점에 대하여 사례 2의 경우는 “남편은 저만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집안 대소사, 자녀문제, 경제문제 등 모든 문제를 제 의견을 믿고 따라주고 저를 항상 대접해 주어요. 제가 실수할 때도 제 입장을 지지해 주고 조언을 해주지요. 대화시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끝까지 노력해요. 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사례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도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된 점이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이며 이혼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남편이 부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고, 친정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끝까지 진지하게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도 공통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기있는 부부관계’나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는 표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혼이 가능한 여건을 자녀가 대학입학후나 자립 후라고 응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곧 이어지는 자녀가 다 떠난 빈둥우리시기가 되면 이들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더욱더 위협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기동안 부부간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간에 쌍방적인 상호관

계 형성의 기본요소인 의사소통을 사랑과 신뢰의 바탕위에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안으로 해야될 것이다(옥선화·정민자, 1993).

또한 부부간에 양보를 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부부 어느 편의 일방적인 양보나 인내가 아니라 ‘주고 받는’ 대등한 교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시댁식구에게 너무 잘하기를 요구한다든가,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가사일에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요구가 앞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부모자녀관계

청소년기 자녀는 급격한 신체발달을 수용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일련의 가치 및 윤리체계를 획득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이다. 또한 진로나 진학에 대한 결정,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대한 준비등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녀가 균형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체계가 되어 주어야 하나, 중년기 부모 역시 신체적·심리적 변화등에 대해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나 자녀가 각각 직면하게 되는 발달과업이 많고, 변화가 급격하며, 이상주의와 현실지향적 사고의 차이로 인해 어려워지기 쉽고, 임시 위주의 교육 풍토 하에서 더욱 왜곡되고 있다.

본 면접 사례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왜곡된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달 과외비로 가구주 소득의 73.3%인 110만원을 지출하여 생활비의 절대 부족분을 은행에 저축된 돈으로 인출하여 살아가는 등(사례15) 긴축 또는 왜곡된 가계를 꾸리기도 하고, 자녀훈육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해하며(사례6),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해 주고, 심지어 자녀의 통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기까지 한 경우(사례11)도 있었다. 자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자녀에 대해 신경을 써 주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교육에 전력하기 위해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

으며(사례5), 자녀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급적 집으로 손님초대하는 일을 자제하고(사례6, 13),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자제하는 가정도 있으며(사례6), 아버지의 음주로 인해 자녀의 학습환경이 나빠지므로 이를 절제한다는 가정(사례12)도 있었다.

물론, 자녀가 열심히 살도록 가르쳐주고, 절약,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며 스스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사례15), 바른 인생관을 갖고 품격있게 자라도록 가르치는 가정(사례10), 믿음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가정(사례7)도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기를 꺾지 않고, 신경겨슬리지 않도록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 보다 보편적이다. 자녀의 옷차림이나 덜렁대는 성격, 짜증내는 것, 담배피우는 것 등에 불만이 없는 바는 아니나 어머니가 속으로 참고, 더 큰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할 뿐(사례 3, 5, 6, 11) 이에 대해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성의 표시는 아이가 귀가할 때까지 또는 밤에 잠들 때 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며(사례 1, 3, 7, 8, 9), 자녀가 공부 잘 할 수 있고, 건강상하지 않도록 도시락을 열심히 성의껏 챙겨주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사례 1, 4, 5, 6, 8, 11, 12).

이상의 어머니의 행동은 마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자녀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고,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애쓰고, 자녀가 혼자 공부하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모습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자녀에 대해 안스럽게 여기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뒷바라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둔다거나 제사지내는 것을 미루는 행동 역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합리화될 수도 있고, 자녀의 입시성공을 가족의 공동목표로 삼아 가족사업화할 만큼 가족의 일체감, 응집성이 큰 것으로 미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나 가족분위기 속에서 자녀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반항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진학을 앞 둔 자녀와 부모와의 문제는 가족내 문제로 국한시켜 해결될 만한 사안이 아니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대학입시의 고질적인 병폐와 연관된 문제로 제도의 뒷받침없이 부모자녀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노부모와의 관계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이념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와 더불어 크게 변화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노부모의 지위와 역할은 확고한 것이었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존경, 공경, 그리고 부양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직업에 종사하며 주거이동이 빈번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노부모의 지위는 약화되고 역할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기혼자녀가 노인과 동거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노인부모나 기혼자녀 모두 경제적인 조건이 허용된다면, 별거를 원하는 추세이다(서병숙, 1988, p 62).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쇠퇴하여 다른 사람의 지원과 도움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그 지원과 도움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맡게 되고 따라서 노부모와 자녀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년기 주부라는 점에 초점을 둘 때, 그들 부모 연령은 거의 70세 전후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며, 따라서 그 부모에 대한 부양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 15명 중 시모만 생존한 8가정의 경우 3명이 동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별거하고 있고, 시부모 모두 생존하였으나 별거하는 경우는 4명이며, 모두 사망한 경우가 3명이다.

사례 13은 시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데 남편은 부모님을 모셔다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부인은 자녀 대학갈 때 까지 연기하기를 원하고 있어 부부간에 부모모시는 일로 의견차이가 있다. 이 경우를 보면, 현재 가정에서 자녀의 진학문제가 노부모보양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의 사례 7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중상집단에 속하는 가정이다. 시모만 생존해 있고 동거하는 가정이며 별 갈등은 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에게 요구하기를 노모에게 좀 더 자상하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인은 자신의 성격이 원래 무뚝뚝해서 노모에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경우 부인은 시모를 단지 의무감에서 동거하고 기본적인 신체적인 봉양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와 동거여부 혹은 봉양은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으며 별거하는 경우에는 전화는 일주일에 1번, 방문은 한달에 1번, 지방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일년에 1-2회 방문하는 정도이다. 이는 도시생활의 핵가족화 현상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노부모에 대한 봉양이 생활의 한 가지 과제이나 그 비중은 자녀양육에 못미친다고 하겠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10년 혹은 그 이전보다 노부모와 기혼자녀 특히 며느리와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심각도는 크게 감소하였다. 1960-70년대에는 노부모들이 자신이 젊었을 때, 그들의 부모에게 행했던 그대로의 대우를 기혼자녀부부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반면 성인자녀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개인주의화된 의식으로 인해 노부모와 기혼자녀 간에 갈등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은 산업화 초기에 자신들이 자녀의 역할을 경험하였고, 개인주의의 팽배, 공리주의, 도시화에 근거한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감소된 것이라고 보인다.

4) 가족공동활동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생활주기상의 과업은 부모와 자녀상호간의 離乳이며(Herz, 1980, Galvin & Brommel 에서 재인용) 부모 자녀간의 세대차에 따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Howells, 1975)이다. 가족원 모두의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면서 가족의 응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생활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년기 가

정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공동의 활동이라고 하겠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생활의 일부분을 공유할 때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고 가족 고유의 생활문화를 누리며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규범을 실현시키는 건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일 것이다.

사례 14의 경우, “우리집의 고3인 맏이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다가 오고 중1, 중2인 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편이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함께 마주 앉아 대화를 하거나 여가활동을 함께 할 시간이 전혀 없다. 고3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준비한 승용차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나는 약 20분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는 좀체로 어렵다. 아버지와 큰 아이를 제외한 아이들과 내가 주로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례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따로 대화를 하므로 어머니 중심의 바퀴형태의 의사소통망(Galvin, K. M. & Brommel, B. J.)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례 3의 주부는, “요즘은 너나없이 바쁜 것 같다. 대4, 고졸, 고2 세 딸은 제 각기 하는 일이 바빠서인지 함께 자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딸들과 나는 자주 모여서 친구, 외모관리, 용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남편과 온 가족이 모여 대화를 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있다해도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자녀에 대해 훈계를 하는 것이 고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 빈도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는 일방적인 지시명령, 훈계, 설교, 비판 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러한 의사소통형태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

다.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가족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때문에 부모들도 자녀의 학교활동, 그 중에서도 학업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아침, 저녁식사를 꼭 함께 하고 저녁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자녀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는 사례 12에서 보듯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주된 주제가 공부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학업에 의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단기적인 공부나 성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녀가 올바른 자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고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며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지영숙, 1995).

가족공동활동으로 가족의 여가생활 역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학교수업과 과외수업등으로 인한 과중한 학과공부때문에 여가생활을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의 제한된 여가시간도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감정적인 자율성을 갖고자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통제를 거부하려 하며 주로 또래집단의 친구와 함께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여가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여겨진다. 이는 “우리 가족은 함께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흔한 외식 한번 하는 적이 없으니까. 여가생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남편과 나는 주말농장에 가거나 등산을 하며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아이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례 2, 또 “우리 가족은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아쉬운 대로 1년에 2번정도 배드민톤을 치거나 1년에 3번정도 등산을 함께 가는 것이 고작이다.”는 사례 11의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중년기 가정의 발달

단계적 특성등으로 이 단계의 가족이 함께 대화를 하고 여가생활을 하기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족공동활동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분히 소외되어 있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가 가족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차적으로는 가족활동을 자주, 많이 갖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가족활동의 내용도 가족공동의 취미활동을 개발한다던가 하여 생활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3. 경제생활

가정의 경제생활은 다양한 자원 중에서도 희소성을 갖는 화폐자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화폐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가족의 욕구는 무한하고 또 가족원에 따라 다양하므로 가족의 욕구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년기는 가계의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 때 가정의 소득이 정점에 도달하나 반면에 자녀의 교육비 등 지출에의 요구도 높기 때문에 균형있는 가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년기 가계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오늘날 중년기 가정의 경제생활의 특징으로 ‘고가의 가계’를 들 수 있다(이기영, 1995). 즉 가계를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고가의 가계는 오늘날 모든 가계에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중년기가계에서는 전생활주기를 통해 소득과 지출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다. 반면에 지출비목중 많은 부분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외형상의 가계팽창에도 불구하고 가족원의 재량권은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주택의 확장, 자녀의 교육비 마련, 노후대비 등 중년기에 성취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중고교학생을 둔 가정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과외비인데 이로 인해 중년기가계는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비목에 압박을 받게 된다.

우선 면접결과 대상가정중 월수입은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분포를 보이며, 이 중 100만원대가 5가구(사례 4, 8, 9, 14, 15)인 반면 400만원 이상이 4가구(사례 1, 3, 6, 7)로 가구간에 큰 소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아파트 평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4가구는 모두 중상집단에 속하며, 100만원대인 5가구중 4가구가 중하집단에 속한다. 한편 생활비는 소득보다 낮아 400만원에서 50만원의 분포를 보인다. 가구에 따라 수입 및 지출구조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 월수입은 273만원, 월생활비는 184만 2천원으로 현대 가계의 특징인 '고가의 가계'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생활비의 비율을 보면 60%~79%가 4가구, 80%~99%가 8가구, 100%가 2가구(사례 2, 5)이고 100%를 훨씬 넘는 적자가계가 1가구(사례 15)이다. 면접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89.3%로 나타나 중년기가정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축액에 제약을 받아 3가구(사례 2, 5, 15)가 저축을 거의 못하며, 월저축액이 30만원미만이 5가구, 30~50만원미만이 2가구, 50만원 이상이 4가구이며 월 평균저축액은 4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의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 소비지출의 증가로 인한 저축액의 축소가 증가된 수입하에서의 가족원의 자유재량권 제약이라는 현대가정의 경제생활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중년기가계가 성취해야 할 과제 중 주택마련을 보면 면접가계중 9가구가 주택과 관련하여 부채를 지거나 적금을 하고 있다. 주택으로 인한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6천만원의 대출금에 월 9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사례 2는 큰 부담을 느끼나 그 밖의 가구는 대출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이고 월대출이자도 20만원 전후이며 상환기간이 10~20년의 장기간이라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 집단별로 보면 아파트 평수가 큰 중상집단에서는 7가구중 3가구가 부채를 진 반면 아파트 평수가 작은 중하집단에서는 8가구중 6가구가 부채를 지고 있다. 중하집단의 소득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관련 부채는 이 집단에 더욱 큰 경제 부담을 주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두번째 과제인 자녀교육을 보면 특히 과외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면접대상가정의 과외비지출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과외비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사례 9)도 1가정 있지만 나머지 14가구는 모두 과외비지출을 하고 생활비의 70%를 과외비로 지출하고 있는 가정(사례 15)도 있다. 사례 15는 3자녀가 각각 재수, 고3, 고1로 총과외비를 110만원 지출해 적자가계를 보이며 부족한 생활비는 저축에서 인출하고 있다.

과외비는 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물론 액수가 많을수록 가계에 주는 부담이 크겠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과외비의 비율이다. 과외비 비율이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는 모든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하여 생활비중 선택적 비목은 물론 필수적인 비목의 지출에도 제약을 준다. 실제로 면접대상가정의 대부분은 "생활비중 필수적 비목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사례 4, 5, 8, 10, 12)", "외식비, 피복비, 오락비 등 선택적 비목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사례 1, 6, 7, 11, 13, 14, 15)"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과외비로 지출을 안해도 될 경우 "피복비에 쓰겠어요(사례 1)", "선교비로 쓰고 싶어요(사례 3)",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겠어요(사례 5)", "입시과외의 부담이 줄어들면 예체능과외에 쓰겠어요(사례 6)", "저축을 하겠어요(사례 7, 14)", "여가를 위해 쓰고 싶어요(사례 8)", "생활비에 보태겠어요(사례 10, 12)", "아이들의 의복비, 문화비, 간식비를 위해 쓰고 싶어요(사례 11)", "저축을 많이 하고 마음에 맞는 옷을 사고 싶어요(사례 13)", "여가 활동이나 봉사활동, 선교활동에 쓰고 싶어요(사례 15)"라고 다양하게 응답하고 있다. 과도한 과외비 지출은 그 금액의 성격 자체가 문제를 내포할 뿐 아니라 노후대책이나 비상시를 위한 저축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한편 대부분의 면접대상 가정들이 생활비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부족항목으로 과외비를 들고 있는 것

을 미루어 볼 때, 과외비는 가정의 경제생활에 매우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주부가 과외비지출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고 다른 용도에 쓸 지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더 생기면 과외비에 대한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과외비는 생활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여유가 생길 때조차 다른 용도에 지출하기 보다는 또다시 과외비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가계소득이나 아파트평수 등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외비문제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 모두가 안고 있는 절대적이고도 기본적인 문제로 보여진다. 이는 과외비가 생활수준, 주부의 학력, 자녀의 성적, 자녀의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정에 포괄화된 현상임을 보여준 선행연구(이기영 외, 1995)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과외비 문제는 단지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가계소득의 증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와 정책 및 제도의 변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세번째 과제인 노후대비를 보면 저축의 목적으로 자녀교육비, 자녀결혼비용 그리고 노후대책을 든 것으로 보아 중년기가정이 노후대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면접가정 중 10가구가 개인연금, 보험, 금융자산, 주식 등의 형태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반면, 5가구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노후대비를 못하는 이유로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다(사례 1)”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못하고 있다(사례 5)” “노후대비에 별 관심이 없다(사례 8)” “현재의 생활비도 모자라니까 노후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에 시댁농장이있고 남편이 장남이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사례 14)”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는 시기이므로 노후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사례 15)” 고 응답하고 있다. 전체 면접대상의 2/3가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이기영 외, 1995)의 55.4%보다 높았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가정이 3가구(사례 2, 4, 12) 있어 선행연구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겠다는 경우가 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중년기라는 생활단계는 노년기를 앞에 두고 노후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인 경제계획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할 시기라는 점, 게다가 면접가정은 필수적인 재정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역시 현재의 생활비에의 요구가 너무 많고 특히 자녀교육을 위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자원에 의해 규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심층면접 결과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생활에 대체로 만족한 경우가 7가정, 보통이 6가정, 불만이 2가정인데 이를 집단별로 보면 중상 집단은 7가정 중 2가정이 만족, 2가정이 불만인데 반해 중하집단은 8가정 중 4가정이 만족, 1가정만이 불만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집단이 경제생활에 대하여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이 100만원대로 낮은 5가정(사례 4, 8, 9, 14, 15) 중 만족한다고 응답한 3가정(사례 8, 14, 15)을 보면, 사례 8의 주부는 신앙심이 깊고 남편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며 물질 자원과 관련된 표준이 낮으며, 사례 14는 현재의 소득은 낮지만 시부모의 자산이 있어 생활의 불안감이 없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또 사례 15는 자녀가 네명이라 교육비가 생활비의 70%이상이고 적자자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봉사활동이나 선교회활동에 쓰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물질적인데 가치를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가족원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구미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생활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표준, 가치, 미래에의 기대 등 다른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주거생활

주거생활의 안정은 가족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며 (임 정빈 외, 1995) 이를 위해 가족은 전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주거조절행동을 한다. 중년기 가족은 자녀의 성장과 프라이버시 요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공간 뿐만 아니라 문화규범에 맞는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가족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거규범은 주거소유권, 주거유형, 주거규모, 주거의 질, 근린환경 등이 있으나 (Morris & Winter, 1978), 이 가운데 주거소유권 확보는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주택금융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장기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사례조사한 가족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기 주택에서부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과 첫 내집 마련 후에 발생한 주거이동에 관한 가족의 주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생활주기 양상에 있어서 김 대년(1993)이 분류한 상승형, 소폭변화형, 기복형, 무변화형이 모두 나타났다. 가장 바람직한 양상인 상승형이 4가구인데 반해, 무변화형은 1가구, 그리고 기복형은 5가구로서 중년기에도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상승형

주거생활주기 유형 중 상승형은 주거결합이 많은 신혼기 주택에서 출발하여 주거이동을 하면서 점차 주거규범에 맞는 주택으로 주거조절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사례조사에서 발견된 이 유형에는 신혼을 시택이나 (사례 4) 일부 전세낸 방 한 칸에서 (사례 1) 출발하였으나 임차주택으로 몇 차례 이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저축한 돈으로 18평짜리 소규모 내집을 마련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주택규모를 늘려서 현재는 35평이나 (사례 4) 44평 (사례 7)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내집을 처음 마련할 때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례 1은 첫 내집으로는 규모가 큰 38평형 아파트를 마련한 후 현재는 48평형에 살고 있다. 사례 6은 일부 전세집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17평형 아파트를 첫 내집으로 마련한 후에 26평형을 분양받았으나 주택자금이 부족하여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자신은 싼 곳에서 전세를 살았다. 다음은 31평형으로 옮기기 위해, 또 다시 43평형으로 옮기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새 주택을 전세 놓고 자신은 싼 전세집에서 살다가 1년전부터 비로소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대형아파트 내집 마련의 어려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승형 가족은 가족형성 이후 몇 년간 저축하여 우선 소규모 내집을 마련한 후 이를 기반으로 규모가 큰 주택으로 이사하여 장기간의 주거조절을 통하여 현재는 원하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 주거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정착안정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소폭변화형

소폭변화형은 주거생활주기 단계의 변화폭이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 보면 신혼은 상승형과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하였으나 소규모내집을 마련한 후 오랫동안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거나 (사례 12) 첫 자가와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가 (사례 13, 15) 해당한다. 예를 들면 사례 11은 일부전세방에서 8년간 살다가 18평형 아파트를 첫 내집으로 마련하여 지금까지 7년동안 살고 있다. 사례 10 역시 일부전세방에서 4년간 3번 이사하면서 살다가 9평짜리 저층 아파트 내집을 마련하여 5년동안 거주한 후 2번 더 이사하여 현재 13평 고층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하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싸서” 좋으나 “방 수가 부족”하고 “좁아서” 현 주거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이 “넓은 집에 사는 것”이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가족들은 한번 내집을 마련한 후 불편한 점이 있고 불만족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거나 이사하더라도 필요한 방 수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들은 제한된 경제생활 속에서 과도한 자녀교육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함으로 인해 불만족한 주거생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주택규모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3) 기복형

기복형은 주거생활주기 단계의 기복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본 사례조사에서 발견된 이 유형의 경우에는 신혼을 상승형이나 소폭변화형과 비슷하게 시택이나 일부전세, 또는 삭월세로 시작한 후 일단 첫 내 집을 마련하였다가 원거리 직장이동이나 보증실패 또는 별거로 인하여 첫 자가를 팔고 임차가구가 되었다가 그 후 다시 내 집을 마련했거나 (사례 2, 3, 5) 아직까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사례 9, 14) 해당한다. 아직 임차인 사례 14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올 해 안에 입주할 예정이며, 사례 9는 13평 전세에 살고 있으나 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복형 사례를 통해 소유권 상실로 인한 주거생활 수준 하락은 직장이동이나 별거, 보증실패와 같은 가족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가족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다시 자가를 마련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무변화형

무변화형은 주거생활주기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이다. 본 사례조사에서는 결혼 후 한번도 내집을 마련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한 사례(8) 있는데, 이 가족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으며, 남편은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결혼 후 첫 주택으로는 다른 사례보다 유리하게 방 2개 있는 사택에서 2년간 살다가 강원도로 전근가서도 5년간 방 2개 있는 사택에서 살았다. 그 후 다시 서울로 전근와서는 방이 3개

있는 20평 아파트 전세집에서 2년간씩 특성이 비슷한 3번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결혼 후 14년간 한번도 내 집을 마련해 본 적이 없으며 특성이 비슷한 주택에 살아오면서 경제적 여유는 없으나 주거생활이나 경제생활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다만 주부 자신의 시간여유가 부족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만 크게 불만족하고 있다. 이 경우는 내집마련이나 주생활 전반에 별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사례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가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를 부인자신의 생활, 가족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주생활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본 사례조사 대상인 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의 문제는 요구와 자원 사이의 상호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인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기대하는 역할과 주부로서의 현재역할 사이의 편차,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인 자원의 사용 가능성이 자아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의 중년기 주부들은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부인들 스스로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우선 부부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부부 서로 간에 개성을 존중하는 쌍방향적인 사랑과 대등한 관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본 연구의 대상가정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사회의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고질적인 병폐가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왜곡된 부모자녀관계를 지속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쇠퇴하여 다른 사람의 지원과 도움의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는 노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지원과 도움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부가되며, 따라서 기혼자녀들의 노부모부양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활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녀의 교육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봉양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가족공동활동은 중년기 가정의 당면한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빈곤, 여가문화의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경제생활영역에서는 물가와 과외비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파악이 된다. 과외비의 경우, 그것은 단지 가정경제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육제도 및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주생활영역을 살펴볼 때, 본 사례연구를 통해 주택 소유권 상실로 인한 주거생활수준하락이 직장이동이나 별거, 보증실패 등의 가족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가족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은 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주택규모나 주택유형과 같은 주거특성을 조절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학입시를 앞둔 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과도한 공부 그리고 사교육비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년기 주부는 자녀의 교육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신의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가정의 경제상태 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부 자신의 자아정체감에도 관련이 되고, 동시에 가족의 공동활동이나 방의 사용과 같은 주거문제에까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고교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제도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결국 성적을 중시하고 사

교육에 대한 무리한 가계관리, 왜곡된 가족관계로 인한 부작용, 즉, 불균형적인 사고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 자녀와 자녀에 대한 기대, 보상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어머니, 나아가서는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등을 가족이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시적 측면에서 가족단위의 노력과 함께 동시에 거시적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왜곡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쟁점화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문제해결의 대안과 정책적인 배려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주부의 자아정체감과 시간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공부 중심의 생활로부터 생활의 각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제도의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부의 여가에 관한 사회적 대안으로는 무료여가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과 여가시설의 확충 등도 주부들의 여가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이는 응답주부들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들 중년기 여성 및 가족을 위한 여가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나 설비를 증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조직망의 활성화 등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외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생활영역에서는, 주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주거조절행동을 하여 온 중년기 가정에 있어서 자녀교육을 위해 공교육비 이외에 과도한 과외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제약은 주택수 부족, 주택금융 부족, 높은 주택가격, 거주환경의 악화와 같은 가족외적 환경과 더불어 주생활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과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 1) 김대년(1993). 대도시 가족의 주거생활주기 유형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외숙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I: 시간사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p.129-142.
- 3) 서병숙(1988). 노인연구. 서울:수학사.
- 4) 옥선화·정민자(1993). 결혼과 가족. 서울:하우.
- 5) 이기영(1995). 광복후 50년간 가정생활의 변화와 전망. 광복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 6) 이기영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p.115-127.
- 7)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이연숙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V):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p.163-177.
- 9) 임정빈외(1994).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 10) 임정빈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 주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3): p.279-289
- 11)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 서울:박영사.
- 12) 전경수(1992). 도시 중산층 아파트촌의 경제생활. 문옥표 외.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43-174.
- 13) 지영숙. 이영호. 송현애(1995). 생활문화의 이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14) 한국가족학연구회편(1993). 가족학. 서울:하우.
- 15) Galvin, K. M., Brommel, B.J.(1986). Family Communication
- 16) Howells, J. G.(1975). Principles of Family Psychiatry, Brunner/Mazel, Inc.
- 17) Morris, E. 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